LEADING
Weekly
Market Insight

2013년 11월 04일

불투명해진 QE 축소시기와 차분한 금융시장

10월 FOMC 이전 양적완화 축소 내년 3월 이후 시행 전망

- **10 월 FOMC 양적완화 규모 유지 불구 축소 시기 관련 불확실성 확대**

지난 주 개최된 FOMC 는 금융시장에 별 다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대부분 시장참여자들은 예상했으나, 예상과는 달리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는 빨라질 수 있음이 확인되면서 시장의 양적 완화 축소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시 커지고 있다. 당초 시장의 예상은 FOMC 가 미국 정부 부분 폐쇄와 정부 부채 한도 관련 협상 지연으로 인한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언급하며 경제성장 전망을 다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내년 3 월 이후로 이연되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지지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10월 FOMC 이후 양적완화 축소 조기 시행 가능성 증가

하지만, FOMC 성명에서는 미국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덧붙여짐과 아울러 주택시장의 둔화는 언급되었지만, 양적완화 축소 시기 지연의 이유로 언급되었던 모기지 금리 상승 관련 부분이 성명에서 빠지면서 향후 경제지표의 강도에 따라서는 양적완화 축소 시기가 빨라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양적완화 축소 조기 시행 여부는 이미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 부정적 요인들이 반영된 10 월 경제지표 보다는 12 월 초에 발표될 11 월 경제 지표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동 지표가 크게 나쁘지 않을 경우 12 월에 양적 완화 축소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주 발표된 미국 CPI 가 전년대비 1.2% 수준에 머물고 있고, EU CPI 도 0.7%로 2009 년 11 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글로벌 경제의 디플레 압력이 커진 부분은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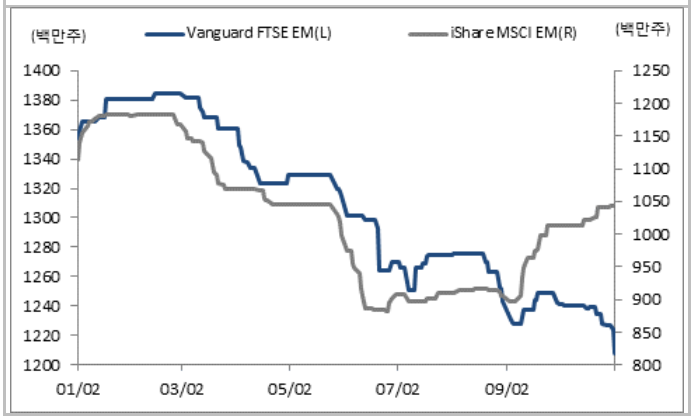
양적완화 조기축소 가능성 증가 불구 차분한 금융시장 반응

하지만,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은 지난 6 월 양적완화 축소가 처음 거론되었던 시기보다는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제조업 PMI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음 주 중국의 18 차 3 중 전회를 앞두고 지난 해 말 집권한 신 정부의 실질적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된다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반영 – 이머징 국가간 차별화 이미 진행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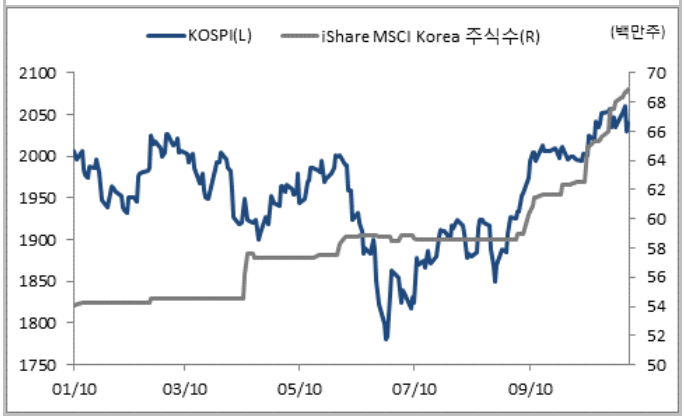
한편, 최근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의 하향 안정세는 선진국 물가의 안정과 함께 글로벌 경기 회복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머징 시장에는 상반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국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자금 유입패턴과도 무관치 않다. 즉, 이머징 마켓 펀드의 경우 한국이 편입된 MSCI 지수를 채용하고 있는 블랙록 자산운용의 iShares 펀드는 9 월 이후 자금유입이 급증하는 반면, FTSE 지수를 채용함에 따라 한국이 빠지면서 브라질, 남아공, 인도, 러시아 비중이 높아진 뱅가드 이머징마켓펀드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hibit 1 EEM(MSCI지수), VWO(FTSE지수) 자금 유출입추이



Source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 EWY(MSCI Korea ETF)자금 유출입과 KOSPI 지수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지역별 주식시장전망

- **미국**

지난 주 발표된 10 월 FOMC 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했다. 하지만 Fed 가 이번 성명에서 언급이 예상되었던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문 업무정지)과 정부 부채 한도 논란의 GDP 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별 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지난 9 월과 같이 여전히 경제가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고 평가함에 따라 양적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다. 즉, 내년 3 월 이후로 양적 완화 축소 시기가 이연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시장 컨센서스와 달리 지표의 강도에 따라서는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FOMC 를 비교적 편하게 기다리며 강세를 보였던 주식시장도 FOMC 회의 이후 다소 조정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주 증시는 기업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 여부가 다시 경제지표의 강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3 분기 GDP, 10 월 고용지표 등 주요 경제지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정부 셧다운 영향에 따른 부정적 요인이 이미 반영된 상황에서 지표 자체보다는 세부항목의 질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 일 발표될 미국의 3 분기 GDP 성장률은 2 분기 2.5% 대비 하락한 1.9%로 컨센서스가 조성되었다. 8 일 예정된 10 월 고용지표도 정부 폐쇄 여파로 2 개월 연속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비농업 일자리수는 전월대비 감소하고, 실업률도 전월 7.2%에서 소폭 상승한 7.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

지난 주 유럽 증시는 선진 유럽의 경우 FOMC 회의 결과의 모호함과 유로존 경제 지표 부진에 따라 보합권에 머무른 반면 남유럽국 증시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그리스 증시는 하락했으나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3분기 GDP 성장률이 긍정적으로 발표된 스페인 증시는 보합으로 마감했다. 유로존의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컸으나 최근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하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주 발표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가 유로존 9월 소매판매 정도로 제한되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투자 발표에 주목하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일 발표 예정인 유로존 9월 소매판매는 그 동안의 상승세에서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돼 최근의 부진한 경제 지표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부정적이다. 한편 7일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겠지만 경제 회복 속도가 더뎌진 부분을 반영해 추가 부양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것으로 예상돼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 **아시아**

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연이은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가 안정세를 보였고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3분기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통계국과 HSBC에서 발표한 10월 제조업 PMI는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나 경기회복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금주는 18차 3중전회 일정이 11월 9일~12일로 확정이 되면서 정책적 기대감으로 인한 투자심리 개선과 과열우려로 최근 급락세를 보인 차스닥의 반등여부 및 10월 무역수지 발표에 주목된다.

- **한국**

금주 한국증시는 NAVER, 롯데쇼핑, 롯데하이마트를 중심으로 인터넷, 소비재주의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3 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하는 기업이 많은 가운데 실적개선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약화와 주식형 펀드 순유출이 약화되어 증시대기자금의 유입이 기대되고 있어 12 월 배당주들과 실적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전망이다.

1. 미주

➢ 경제

지난 주 미국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주초 발표된 부진한 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를 완화시켜주었지만, 반대로 경제에 대한 우려감을 증가시켰다. 물가, 소비, 고용 지표가 부진했고, 주택 관련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으며, 제조업 관련 지표는 호조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9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1.2% 상승에 그쳐 전월 1.5%에 비해 둔화돼 시장에서는 Fed가 QE 축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증가했다. 9월 소매판매도 0.1% 감소하며 지난 4월 이후 5개월째 이어지던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고, 고용 지표인 ADP 10월 민간부문 고용,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보험 연속 수급 신청자수 역시 부진한 모습이었다. 한편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였지만 지난 9월 미결주택매매가 전월보다 5.6% 떨어지며 2010년 5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고, FOMC 회의에서도 주택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 후반 발표된 제조업 관련 지수들은 10월 시카고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011년 3월 이후 최고 경신하는 등 연방정부의 셧다운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0월 FOMC 회의에서는 자산매입 속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미국의 경제가 적절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주식

지난 주 미국 증시는 주 초 양적완화 유지 기대감에 다우와 S&P 500 지수는 종전의 사상 최고치를 넘어 서며 상승 추세를 보이다 FOMC 회의 발표 이후 양적완화 축소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시 제기되며 조정을 보였으나 제조업 지표 호조로 4주 연속 상승 마감했다. 섹터별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과 배당 매력이 부각돼 필수 소비재 섹터가 1.1% 상승했고, 통신 섹터는 최근 통신 대표 기업들의 M&A, 글로벌 국가 진출 확대, 신규 사업 모색과 더불어 실적 호조와 배당 매력 증가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반면 유틸리티 섹터는 대표 종목인 서던(SO)의 실적 부진 등 펀더멘털 우려가 부각돼 1.3% 하락했고, 금융 섹터도 개별 은행들의 환율 조작 혐의 등의 문제 제기로 1.2%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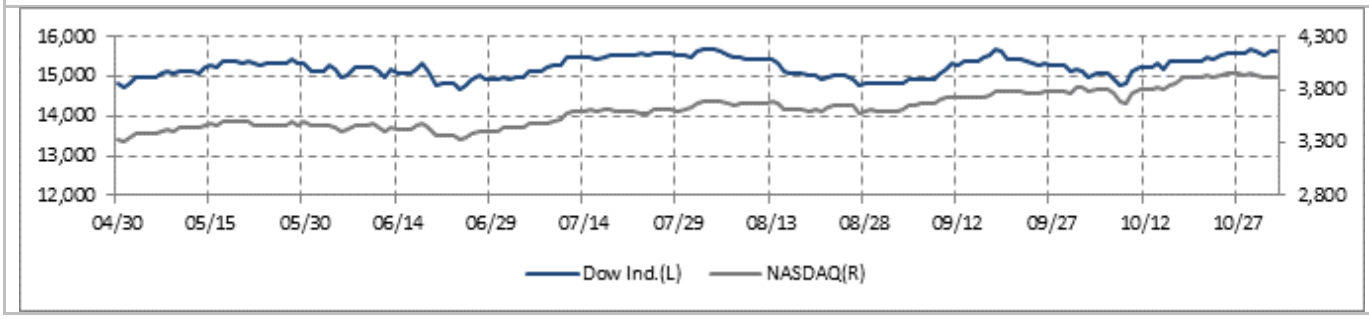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10 월 FOMC 회의에서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를 유보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적절한 속도로 회복 중이라고 밝히며 향후 테이퍼링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전망이 국채 가격을 끌어내렸고 달러는 소폭 강세를 보였다.

Exhibit 3 주간 경제 지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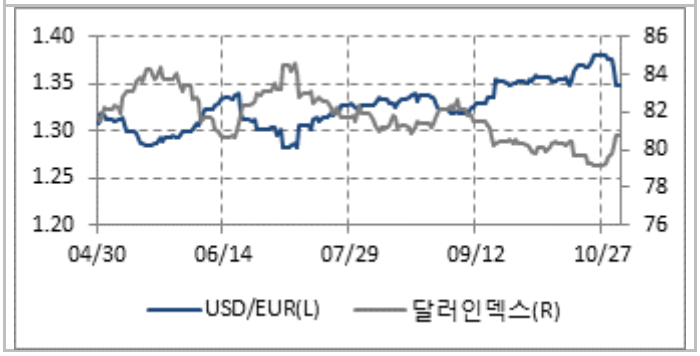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0-28	미국	설비가동률	(%)	78.00	78.30	77.90	0.30	0.40
발표	2013-10-28	미국	미결주택매매(전월대비)	(%)	0.00	-5.60	-1.60	-5.60	-4.00
발표	2013-10-29	미국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	0.00	-0.10	0.20	-0.10	-0.30
발표	2013-10-29	미국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 지수 NSA			164.53	162.39		2.14
발표	2013-10-29	미국	기업재고	(%)	0.30	0.30	0.40	0.00	-0.10
발표	2013-10-29	미국	소비자기대지수		75.00	71.20	80.20	-3.80	-9.00
발표	2013-10-30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6.40	-0.60		7.00
발표	2013-10-30	미국	ADP취업자 변동	(천)	150.00	130.00	145.00	-20.00	-15.00
발표	2013-10-30	미국	CPI (전년대비)	(%)	1.20	1.20	1.50	0.00	-0.30
발표	2013-10-31	미국	FOMC 금리결정	(%)	0.25	0.25	0.25	0.00	0.00
발표	2013-10-31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천)	338	340	350	2.00	-10.00
발표	2013-10-31	미국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천)	2,870	2,881	2,850	11.00	31.00
발표	2013-10-31	미국	시카고 구매자협회		55.00	65.90	55.70	10.90	10.20
발표	2013-11-01	미국	Markit 미국 PMI 최종		51.1	51.8	51.1	7	7
발표	2013-11-01	미국	ISM 제조업지수		55.0	56.4	56.2	1.4	2
예정	2013-11-04	미국	ISM 뉴욕				53.6		
예정	2013-11-06	미국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6.40		
예정	2013-11-07	미국	GDP 연간화 QoQ	(%)	2.00		2.50		
예정	2013-11-07	미국	개인소비	(%)	1.60		1.80		
예정	2013-11-08	미국	소비자신용지수		12.10		13.63		
예정	2013-11-08	미국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천)	125.00		148.00		
예정	2013-11-08	미국	실업률	(%)	7.30		7.20		
예정	2013-11-08	미국	개인소득	(%)	0.30		0.40		
예정	2013-11-08	미국	미시간대 기대지수		74.50		73.20		

Exhibit 4 미국 주요 지수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5 달러 인덱스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6 미국 10 년 채권 수익률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7 미국 주요 섹터별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C World	395.7	-0.6	3.0	4.5	16.5
다우종합	15,615.6	0.3	3.2	-0.3	19.2
NASDAQ	3,922.0	-0.5	2.8	6.3	29.9
S&P 500	1,761.6	0.1	4.0	3.0	23.5
S&P 500 에너지	627.5	-0.4	2.9	2.7	17.7
S&P 500 소재	275.3	-1.3	3.1	6.5	15.8
S&P 500 산업재	424.1	0.6	5.4	6.5	29.0
S&P 500 경기소비재	503.6	0.4	4.0	4.6	33.9
S&P 500 필수소비재	437.2	1.1	6.2	1.6	21.2
S&P 500 헬스케어	614.8	0.6	3.8	3.4	32.8
S&P 500 금융	277.5	-1.2	2.8	-1.0	25.4
S&P 500 IT	543.5	0.4	3.6	5.0	17.2
S&P 500 통신서비스	160.1	1.2	7.0	0.8	9.7
S&P 500 유틸리티	198.2	-0.6	3.9	-1.3	11.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8 미국 주요 종목 등락률

종목명	종가	수익률(%)			
	(USD)	(1 주)	(1 개월)	(3 개월)	(YTD)
HEWLETT-PACKARD CO	25.9	8.0	21.1	-4.0	81.9
TEXAS INSTRUMENTS	42.0	4.5	4.4	5.2	36.1
NEWS CORP - CLASS A	17.8	3.6	10.1	8.7	#VALUE!
AT&T INC	36.2	3.0	6.8	1.3	7.5
COSTCO	119.6	2.7	4.2	0.2	21.2
MCDONALD'S CORP	97.2	2.6	2.1	-2.0	10.2
GENERAL ELECTRIC CO	26.5	2.6	9.1	7.4	26.4
FACEBOOK INC-A	49.8	-4.2	-1.1	30.7	86.9
BIOGEN IDEC INC	243.1	-3.6	-1.3	6.7	66.1
CELGENE CORP	151.3	-2.8	-3.0	2.7	92.8
MERCK & CO. INC.	45.2	-2.8	-6.5	-6.8	10.5
CHEVRON CORP	118.0	-2.1	-2.3	-5.6	9.1
PRICELINE.COM INC	1,052.5	-1.7	-1.4	15.9	69.7
BANK OF AMERICA	14.0	-1.7	-0.3	-5.5	20.8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9 미국 주요 채권 지표

주요 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국고채 10년	2.62	11.3	0.5	2.6
국고채 5년	1.37	9.1	-0.8	1.5
LIBOR 3M	0.24	0.1	-0.7	-2.9
EUR-LIBOR 3M	0.17	0.0	1.4	2.0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0 달러 환율 추이

주요 환율	종가	통화가치 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달러 인덱스	80.72	1.9	1.0	-1.5
USD/EUR	1.35	-2.3	-0.2	1.6
JPY/USD	98.67	-1.3	-1.3	0.3
CNY/USD	6.10	-0.3	0.4	0.5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2. 유럽

➢ 경제

유로존의 체감지표는 개선되었지만 실물지표는 다시 부진하며 경기 회복 속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10 월 유로존 경기기대지수가 97.8 로 2011 년 8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6 개월째 상승했다. 세부 항목별로 산업기대지수가 마이너스(-) 4.8 로 직전월의 -6.6 에서 개선됐고, 소비자기대지수는 전월과 같은 -14.5 를 나타냈다. 서비스기대지수는 직전월의 -3.2 에서 -3.7 로 악화되었다. 한편 유로존 9 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7%로 예상치와 이전치 1.1%를 하회하며 4 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 ECB 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전망이 강화되었다. 실업률도 여전히 사상최고치인 12.2%에 머물며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한편 남유럽 국가인 스페인에서는 긍정적 소식이 있었다. 3 분기 GDP 잠정치가 전분기 대비 0.1% 상승하며 2 분기의 -0.1%를 상회하고 10 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고, 전년대비로도 -1.2% 하락하며 2 분기의 -1.6% 대비 회복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경제가 긴 침체기에서 벗어나며 성장 궤도에 올라선 것으로 보인다.

➢ 주식

지난 주 유럽 주요 증시는 선진 유럽의 경우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다소 실망감을 드러낸 반면 남유럽 주요 증시는 반발 매수세와 더불어 남유럽 지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남유럽 국가 중 그리스는 지난 주 발표된 10 월 제조업심리지수와 8 월 소매판매가 하락하며 증시에 부담을 줘 아테네 증시가 1.1 % 하락했다. 하지만 월간 상승률은 3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돋보이고 있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대표 지수는 각각 1.5%, 1.4% 상승하며 선진 유럽 대비 높은 주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업의 3 분기 실적이 잇따라 발표되는 가운데 유럽 3 위 에너지 기업 BP 가 배당을 5.6% 높인다고 발표해 주간 단위로 7.4% 상승했다. 2011 년 1 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석유 가스 업종의 호조세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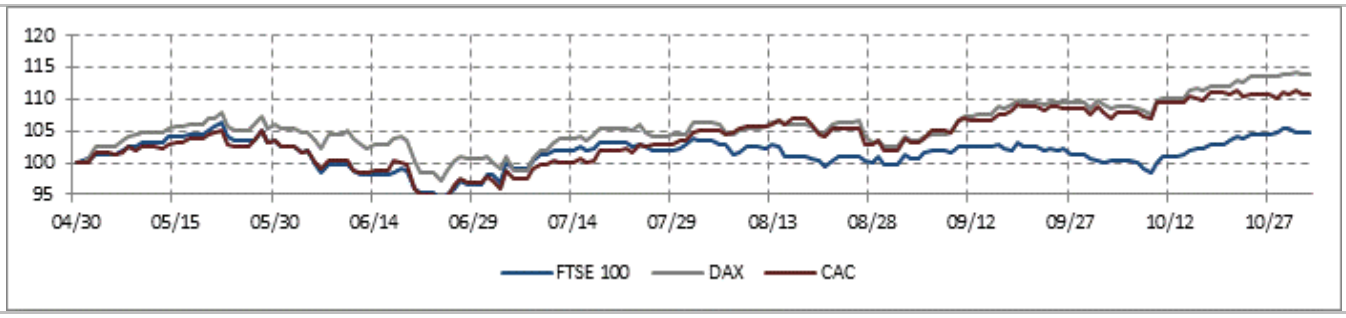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지난 주 유럽 국채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그리스 국채 매수세가 몰리며 10 년 국채 가격이 크게 상승했고, 국채 수익률은 7.8%로 마감하며 8%를 하회했다. 영국 국채 10 년 가격은 차익실현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편 유로화는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조기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 등이 고개를 들자 하락했다. 지난 주 ECB 정책위원인 노보트니는 ECB 의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 만료되면 추가 유동성 공급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ECB 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 되기도 했다.

Exhibit 11 유럽 경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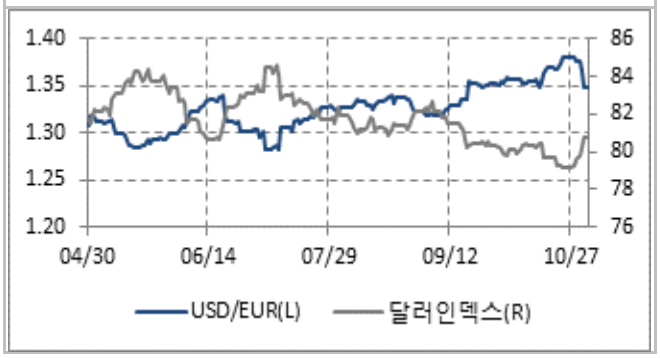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0-30	유로존	기업환경지수		-0.19	-0.01	-0.19	0.18	0.18
발표	2013-10-30	유로존	경기기대지수		97.20	97.80	96.90	0.60	0.90
발표	2013-10-31	영국	전국 주택 가격 MoM	(%)	0.70	1.00	0.90	0.30	0.10
발표	2013-10-31	독일	소매판매 (전월대비)	(%)	0.40	-0.40	-0.20	-0.80	-0.20
발표	2013-10-31	프랑스	소비자 지출 MoM	(%)	0.30	-0.10	-0.30	-0.40	0.20
발표	2013-10-31	유로존	실업률	(%)	12.00	12.20	12.20	0.20	0.00
발표	2013-10-31	유로존	CPI 예상 YoY	(%)	1.10	0.70	1.10	-0.40	-0.40
발표	2013-11-01	영국	PMI 제조업		56.40	56.00	56.30	-0.40	-0.30
예정	2013-11-04	프랑스	PMI 제조업		49.4		49.4		
예정	2013-11-04	독일	PMI 제조업		51.5		51.5		
예정	2013-11-04	유로존	PMI 제조업		51.3		51.3		
예정	2013-11-04	유로존	센틱스 투자자기대지수		62.0		61.0		
예정	2013-11-05	영국	PMI 서비스	(%)	60.0		60.3		
예정	2013-11-05	영국	외환보유고 변동	($)			-188.00		
예정	2013-11-06	유로존	PMI Composite		51.5		51.5		
예정	2013-11-06	영국	광공업생산 MoM	(%)	0.60		-1.10		
예정	2013-11-06	유로존	소매판매 (전월대비)	(%)	-0.40		0.70		
예정	2013-11-07	영국	영국은행 은행 금리	(%)	0.50		0.50		
예정	2013-11-07	유로존	ECB 금리 공시	(%)	0.50		0.50		
예정	2013-11-08	프랑스	광공업생산 MoM	(%)	0.20		0.20		
예정	2013-11-08	영국	무역수지	(£)	-2,700.00		-3,320.00		

Exhibit 12 유럽 주요 증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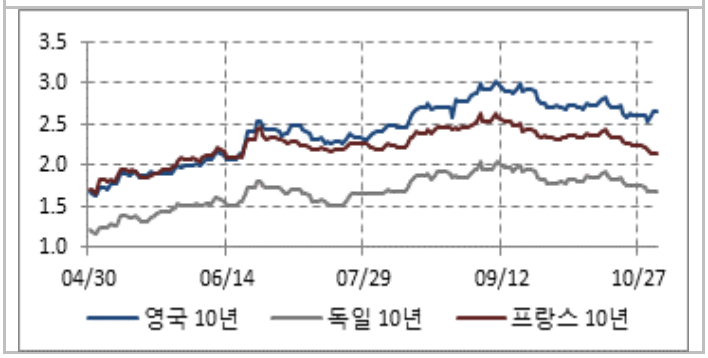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3 유로화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4 주요국 채권 금리 추이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5 유럽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EMU	99.9	0.6	4.2	8.1	17.5
FTSE EUROTOP 100	2,623.3	0.4	3.5	5.3	12.8
Euro Stoxx 50	3,052.1	0.6	4.6	8.6	15.8
영국 FTSE 100	6,734.7	0.2	4.6	1.3	14.2
독일 DAX	9,007.8	0.2	4.4	7.1	18.3
프랑스 CAC 40	4,273.2	0.0	2.8	5.6	17.4
이탈리아 FTSE MIB	19,164.3	1.5	5.9	14.2	17.8
스페인 IBEX 35	9,838.3	0.2	5.2	14.7	20.5
포르투갈 PSI 20	6,238.3	1.4	3.3	8.0	10.3
그리스 ASE	1,177.7	-1.1	16.4	28.5	29.7
스위스 SPI	7,816.3	-0.1	3.3	3.8	24.3
러시아 RTS	1,477.6	-1.0	3.9	10.6	-3.2
터키 ISE 100	76,501.2	-3.5	1.8	3.3	-2.2
남아공 TOP40	40,729.2	1.0	3.5	9.4	17.1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6 유럽 주요 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 bn)	수익률(%)	
				(1 주)	(1 개월)
프랑스	ALCATEL-LUCENT	IT	9.4	17.6	4.7
영국	BP PLC	에너지	145.5	7.4	12.1
독일	VOLKSWAGEN AG-PREF	경기소비재	115.7	7.1	9.8
영국	ASSOCIATED BRITISH FOODS PLC	필수소비재	28.5	5.5	20.6
영국	BT GROUP PLC	통신서비스	47.9	5.4	9.1
영국	NEXT PLC	경기소비재	13.6	5.2	6.5
영국	AGGREKO PLC	산업재	6.8	4.4	5.0
프랑스	TECHNIP SA	에너지	11.6	-15.2	-12.8
영국	MEGGITT PLC	산업재	6.5	-9.3	-5.7
영국	EVRAZ PLC	소재	2.7	-8.9	-7.1
영국	ROYAL BANK OF SCOTLAND GROUP	금융	61.4	-7.7	-7.3
프랑스	RENAULT SA	경기소비재	24.5	-7.3	3.5
영국	CRODA INTERNATIONAL PLC	소재	5.3	-5.9	-8.4
영국	EURASIAN NATURAL RESOURCES	소재	4.4	-5.1	-0.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7 유로화 환율 / 주요국 채권 지표

주요 환율/채권	종가(%)	변동률(%, bp)		
		(1 주)	(1 개월)	(3 개월)
USD/EUR	1.35	-2.3	-0.2	1.6
영국 10년	2.6	3.2	-6.7	22.2
독일 10년	1.7	-6.4	-11.9	4.1
프랑스 10년	2.1	-10.4	-19.5	-4.7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18 남유럽 채권 지표

주요국 채권	종가	변동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이탈리아 10년	4.1	-14.5	-28.6	-17.5
스페인 10년	4.0	-18.6	-27.7	-59.3
포르투갈 10년	6.1	-6.9	-63.9	-42.9
그리스 10년	7.8	-63.8	-133.8	-192.6

Source :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3. 아시아

➢ 경제

중국 제조업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3 분기에 이어 경기회복세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11 월 1 일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PMI 는 전월의 51.2 와 예상치 51.1 보다 높은 51.4 를 나타내어 18 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PMI 는 52.3, 중소기업 PMI 는 50.2 로 5 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선 50 을 상회하였다. 같은 날 발표된 HSBC 제조업 PMI 확정치 역시 50.9 를 기록하여 전월치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일요일 발표된 비제조업 PMI 도 56.3 으로 전월(55.4)을 상회하여 서비스업 경기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편, 경기회복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중앙은행의 역환매조건부채권(역 RP) 발행중단과 기업들의 세금납부로 인한 유동성 축소로 급등하던 자금시장의 단기금리는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다시 안정세를 보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9 월 소매판매총액은 11 조 엔으로 YoY+ 3.1% 증가하여 예상치(YoY+1.8%)를 크게 상회하였다. 일본은 11 월 4 일 문화의 날을 맞아 휴장을 한다.

➢ 주식

지난주 중국 증시는 신용경색 우려와 함께 어닝시즌을 맞은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투자심리를 위축시켜 전주에 이어 하락세를 보이다가 18 차 3 중 전회 일정 확정 이후 정책 기대로 다시 상승했다. 홍콩 항셍지수도 본토의 정책적 기대감과 중국발 신용경색 우려가 해소되면서 전주 대비 2% 이상 상승했다. 일본 증시는 기업 실적 부진 및 미 연준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우려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며 주 중반까지의 상승 폭의 상당부분을 반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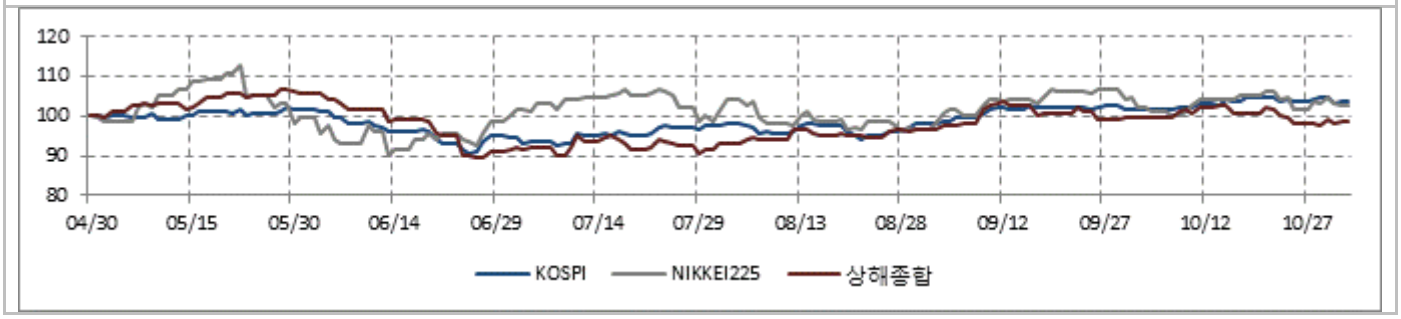
➢ 채권 & 외환

중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으로 빠른 상승세를 보였던 Shibor O/N 금리가 하락세를 보여 4% 대로 접어들었다. 지난주 중앙은행은 7 일물과 14 일물 역 RP 발행을 통하여 시중에 290 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미국 10 월 제조업 지표 호조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엔 달러 환율은 98.67 대로 마감을 하였다.

Exhibit 19 아시아 경제 지표

구분	일자	국가	지표명	단위	지표			변화치	
					시장 예상치	발표치	직전치	시장 대비	직전 대비
발표	2013-10-29	한국	BoP 경상수지	($백만)		6,571.10	5,676.70		894.40
발표	2013-10-29	일본	소매판매 (전월대비)	(%)	0.50	1.80	0.90	1.30	0.90
발표	2013-10-29	중국	선행지수			99.64	99.89		-0.25
발표	2013-10-30	한국	산업생산 SA 전월비	(%)	-0.40	-2.10	1.60	-1.70	-3.70
발표	2013-10-30	일본	광공업생산 MoM	(%)	1.80	1.50	-0.90	-0.30	2.40
발표	2013-10-31	일본	Markit/JMMA 제조업 PMI			54.20	52.50		1.70
발표	2013-10-31	일본	일본은행 정책금리						
발표	2013-11-01	한국	CPI (전년대비)	(%)	1.00	0.70	0.80	-0.30	-0.10
발표	2013-11-01	한국	수출 YoY	(%)	2.30	7.30	-1.50	5.00	8.80
발표	2013-11-01	한국	수입 YoY	(%)	1.50	5.10	-3.60	3.60	8.70
발표	2013-11-01	한국	무역수지	($백만)	4,300	4,899	3,681	599	1,218
발표	2013-11-01	중국	제조업 PMI		51.20	51.40	51.10	0.20	0.30
발표	2013-11-01	중국	HSBC/Markit 제조업 PMI		50.70	50.90	50.20	0.20	0.70
발표	2013-11-03	중국	비제조업 PMI	(%)		56.3	55.40		0.9
예정	2013-11-05	중국	HSBC/Markit 서비스 PMI				52.40		
예정	2013-11-08	중국	무역수지	($십억)	23.50		15.21		
예정	2013-11-08	중국	수출 YoY	(%)	1.30		-0.30		
예정	2013-11-08	중국	수입 YoY	(%)	7.40		7.40		
예정	2013-11-09	중국	CPI (전년대비)	(%)	3.30		3.10		
예정	2013-11-09	중국	광공업생산 YoY	(%)	10.10		10.20		
예정	2013-11-09	중국	소매판매 YoY	(%)	13.40		13.30		

Exhibit 20 아시아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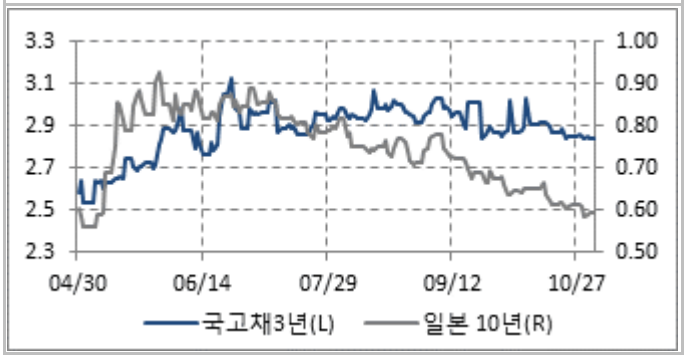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1 원화환율 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2 한국 국고채 3 년 VS 일본 10 년 추이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3 아시아 주요국 수익률

	종가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MSCI Asia Pacific	141.2	-0.1	1.9	4.2	9.2
MSCI EM	1,027.9	0.1	3.0	7.6	-2.6
한국 KOSPI	2,039.4	0.2	2.0	6.0	2.1
일본 NIKKEI 225	14,201.6	0.8	0.2	-1.8	36.6
중국상해종합	2,149.6	0.8	-1.2	5.9	-5.3
홍콩항생	23,249.8	2.4	1.2	4.8	2.6
호주 ASX 200	5,411.1	0.5	3.7	5.8	16.4
뉴질랜드 NZX 50	4,913.8	1.0	3.0	7.2	20.8
인도 SENSEX 30	21,196.8	2.5	8.6	10.6	9.1
싱가포르 STI	3,201.2	-0.1	1.5	-1.6	1.1
태국 SET	1,429.1	-1.8	1.4	0.6	2.7
인도네시아자카르타	4,432.6	-3.2	1.0	-4.5	2.7
필리핀PSEi	6,585.4	0.7	3.5	0.8	13.3
베트남호치민	497.1	-0.7	0.5	0.5	20.1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4 아시아 주요종목 등락률

국가	종목명	섹터	시가총액 (USDbn)	수익률(%) (1 주)	(1 개월)
중국	TINGYI (CAYMAN ISLN) HLDG CO	필수소비재	16.8	10.7	15.9
홍콩	ESPRIT HOLDINGS LTD	경기소비재	3.5	9.9	14.7
홍콩	KUNLUN ENERGY CO LTD	에너지	12.9	9.3	12.1
중국	DAQIN RAILWAY CO LTD -A	산업재	18.2	8.7	2.7
중국	WANT WANT CHINA HOLDINGS LTD	필수소비재	20.5	7.9	1.0
일본	JAPAN TOBACCO INC	필수소비재	72.8	7.4	2.4
중국	HUANENG POWER INTL INC-A	유틸리티	13.8	7.2	7.8
중국	DR PENG TELCOM & MEDIA GR-A	통신서비스	3.3	-15.7	-20.3
일본	YAHOO JAPAN CORP	IT	25.5	-13.2	-21.8
중국	ZHEJIANG CHINT ELECTRICS-A	IT	4.4	-6.8	19.2
일본	JFE HOLDINGS INC	소재	13.7	-6.5	-10.6
중국	SANAN OPTOELECTRONICS CO L-A	IT	4.8	-5.5	0.7
일본	NIPPON STEEL & SUMITOMO META	소재	30.9	-4.2	-3.0
일본	FANUC CORP	산업재	37.2	-4.0	-3.9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25 아시아 주요 채권지표

주요채권	종가(%)	수익률(bp) (1 주)	(1 개월)	(3 개월)
한국 국채 5년	3.09	4.7	2.7	-18.3
일본 10년	0.59	-1.9	-4.6	-22.4
중국 10년	4.16	-3.3	15.3	44.1
호주 10년	4.07	9.9	12.4	27.5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26 달러환율 추이

주요환율	종가	통화가치변동률(%) (1 주)	(1 개월)	(3 개월)
KRW/USD	1,060.80	0.12	1.25	5.94
JPY/USD	98.67	-1.27	-1.31	0.27
CNY/USD	6.10	-0.26	0.36	0.50
AUD/USD	1.06	-1.53	1.01	5.98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한국**

주초 중국 단기금리 급등과 중국대형은행 부실채권비율이 증가 우려로 아시아 증시는 약세를 보였으나, 한국증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며 주 중반까지 강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목요일 FOMC 에서 양적 완화 축소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제기되고 외국인 매수세가 약화되며 반락한 후, 주말 미국, 중국 제조업 지표 개선 및 중국 정부 유동성 공급으로 단기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반등하여 KOSPI 는 전주대비 0.2% 상승하였다.

또한, 지난 주에는 대만 지진에 대한 반사 이익과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IT 섹터와 유틸리티 이외에는 대부분 섹터가 약세를 보여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부진했던 3 분기 기업 실적이 시장상황에도 반영되었다.

Exhibit 27 증시 주변자금 현황

(십억원)	Close	1W(△)	1M(△)	3M(△)	6M(△)	YTD(△)
고객예탁금	15,250.9	-230	-1,595	-3,700	-3,313	-2,763
국내주식형펀드	85,443	-257	-2,891	-7,447	-6,502	-8,944
신용융자(KSE+KOSDAQ)	4,548	49	215	-4	23	636
MMF	74,588	413	-1,046	-972	163	10,917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8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누적,KSE+KSQ,십억원)	주간	월간	3 개월	6 개월	YTD
외국인	545.0	5,214.4	15,322.9	11,799.1	7,048.3
기관투자가	-438.4	-4,157.8	-8,035.5	-4,104.1	1,337.9
(연기금)	123.9	438.6	2,851.6	5,360.9	8,644.5
개인	-144.1	-629.1	-5,989.1	-5,880.3	-5,921.6
기타	37.6	-427.5	-1,298.2	-1,814.7	-2,464.6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29 글로벌 증시 대비 국내 증시 변동

섹터	주간수익률(%)			투자자매매동향 (5 일누적,십억원)		
	한국	MSCIACWI	편차	기관	외국인	개인
전체	0.3	-0.6	0.9	-554.1	765.3	-232.1
에너지	-1.8	-0.4	-1.3	-48.5	7.9	41.1
소재	-0.1	-2.0	1.9	59.1	-9.4	-54.1
산업재	-1.8	-0.8	-1.0	-153.6	-48.2	214.8
경기소비재	-0.5	-0.4	-0.0	6.3	18.9	-14.2
필수소비재	-0.2	-0.3	0.2	-1.1	36.3	-41.1
의료	-0.3	-0.0	-0.2	-11.3	-37.3	43.2
금융	-0.0	-1.0	1.0	10.7	24.4	-46.3
IT	2.4	0.2	2.1	-169.5	568.8	-417.7
통신서비스	-1.5	0.4	-1.9	-266.8	207.0	59.3
유틸리티	0.5	-0.9	1.4	20.5	-3.0	-17.2

Source:IBES,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0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수 종목

주간기관순매수		주간외국인순매수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NHN엔터	61.1	하나금융지주	265.6
대한항공	57.4	삼성전자	230.0
현대모비스	48.5	현대차	87.1
신한지주	44.8	신세계	66.3
POSCO	37.5	현대제철	46.3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Exhibit 31 주간 투자주체별 주요 순매도 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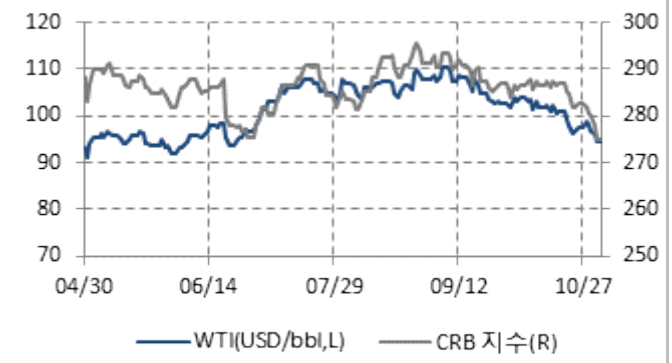
주간기관순매도		주간외국인순매도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종목명	순매수 (십억원)
하나금융지주	-278.2	삼성엔지니어링	-71.2
삼성전자	-211.4	NAVER	-68.2
SK하이닉스	-103.1	신한지주	-51.0
KT	-90.0	현대모비스	-29.7
기아차	-89.2	롯데케미칼	-26.8

Source:FnGuide, 리딩투자증권

4.원자재가격동향

WTI 는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원유재고가 410 만배럴 증가해 시장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3.0% 하락하였다. 전주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지속발표로 귀금속 가격은 하락을 보였고 비철금속은 보합을 보였다. 국제 곡물가격은 인도의 작황 호조와 곡물 수출 증가우려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BDI 지수는 8.7% 하락하였다.

Exhibit 32 원유(WTI)와 CRB 상품지수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3 금과 LME 니켈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4 옥수수와 대두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Exhibit 35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와 낸드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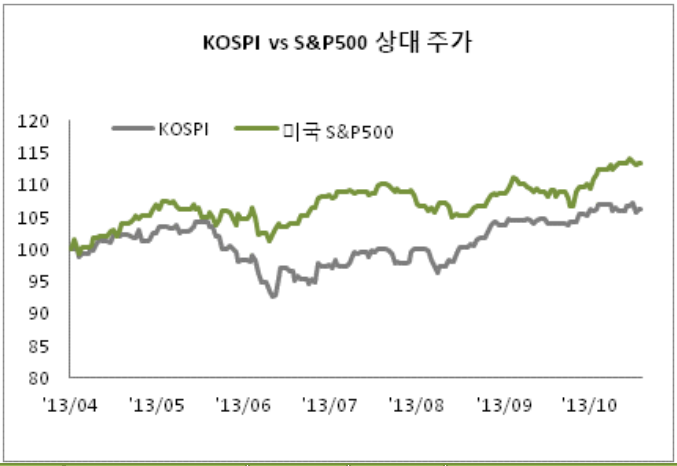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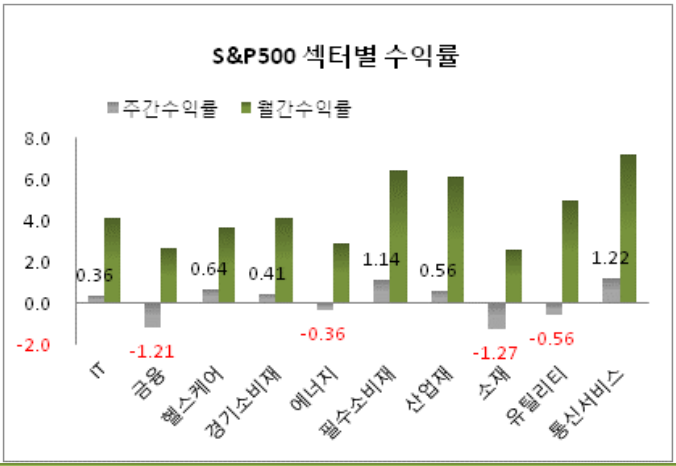
Exhibit 36 주요 원자재 가격동향

주요원자재	종가 (USD)	수익률(%) (1 주)	(1 개월)	(3 개월)	(YTD)
WTI(NYMEX)	94.6	-3.0	-9.1	-11.5	3.0
Brent(ICE)	105.9	-1.0	-2.2	-0.8	1.0
천연가스(NYMEX)	3.5	-7.8	-5.1	-4.2	-11.0
금(NYMEX)	1,313.2	-2.9	-0.5	0.2	-22.1
은(CME)	21.8	-3.5	-0.3	9.4	-28.2
구리(LME)	7,245.0	0.8	-0.5	3.4	-8.6
아연(LME)	1,940.0	-0.8	2.6	4.0	-6.7
니켈(LME)	14,570.0	-0.1	6.0	4.1	-14.6
알루미늄(LME)	1,843.0	-2.0	0.3	1.9	-11.1
CRB 상품지수	275.0	-2.7	-4.0	-3.1	-6.8
밀(CBOT)	667.8	-3.3	-2.7	-0.8	-18.6
옥수수(CBOT)	427.3	-2.9	-2.7	-7.9	-28.8
대두(CBOT)	1,251.5	-3.2	-1.9	5.4	-4.4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505.4	1.8	2.1	4.6	31.6
NAND 16Gb MLC	3.6	-0.6	-1.9	19.5	88.4
DDR3 1G 1333MHz	1.5	-1.3	-0.6	20.5	128.4
Baltic Dry Index	1,525.0	-8.7	-24.1	43.2	118.2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5.미국섹터/종목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에너지	엑슨모빌	XOM	2.1	■ **엑손모빌,** 3 분기(7~9 월) 순이익이 78 억 7000 만달러, 주당 1.79 달러로 이익이 감소했으나 매출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음. 산업내 생산설비가 공급 과잉을 보인 탓에 다운스트림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정제마진이 심각하게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이익 감소를 야기. 3 분기중 정제마진이 배럴당 17.54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43% 급감했음. 정제 마진이 20 달러 이하로 내려간 것은 3 년만에 처음. 단, 이 기간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생산량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 ■ **S&P 500 S&P 500 석유&천연가스 정유업종**의 월간 12M FWD EPS 변화율은 5.54% 하락했음. 12M FWD PER 는 9.9 배로 전월 8.4 배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 감소
	셰브론(CVX)	CVX	-2.1	
	슐럼버그(SLB)	SLB	0.1	
소재	몬산토	MON	-2.6	■ **BP,** 시장 전망을 상회하는 3 분기 실적 발표. BP 는 지난 3 분기 일회성 경비 등을 제외한 조정 순익이 37 억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50 억달러보다 감소한 것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한 34 억달러는 웃도는 실적. BP 는 실적 발표 후 배당액을 주당 9.5 센트로 5.6% 올리기로 함. 이에 따라 주가는 급등해 최고치 경신 ■ **S&P 500 다각화 금속&광업 업종**의 월간 12M FWD EPS 변화율은 6.65% 증가했음. 12M FWD PER 는 12 배로 전월 11.4 배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 감소
	듀폰	DD	-1.3	
	BP	BP	6.6	
산업재	캐터필러	CAT	-1.4	■ **보잉,**보잉사와록히드마틴이 미 공군의 차세대 장거리 폭격기 개발을 위해 손잡았음. 미 공군의 차세대 장거리폭격기(Long Range Strike Bomber·LRS-B) 프로그램에 연합팀을 구성. 록히드-보잉 팀은 미 공군의 예산과 일정에 맞춰 새로운 폭격기를 설계, 개발, 생산,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점을 발휘할 것. 지난 주 주가는 사상 최고치 경신 ■ **S&P 500 S&P 500 항공 업종**의 월간 12M FWD EPS 변화율은 8.47% 증가했음. 12M FWD PER 는 9.7 배로 전월 9.3 배에 비해 밸류에이션 매력 감소
	보잉	BA	1.4	
	쓰리엠	MMM	1.2	
경기소비재	홈디포	HD	1.0	■ **S&P500 주택자재, 주택건설 업종**, S&P500 하부 업종별 12M FWD EPS 변화율을 보면 주택건설업종이 10.55%, 건축자재업종이 10%를 기록. 5 월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인 주택 관련 업종이 세부 업종별로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회복 국면을 보인 것으로 분석. 한편 건축&농기계 업종은 6.84% 하락했음. 주택개량소매 1.56% 증가 ■ **제너럴모터스**, 3 분기 순이익 6 억 9800 만달러, 주당 45 센트를 기록해 1 년전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자사주 재취득과 세금 비용 등 일회성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96 센트로 예상치 주당 94 센트를 상회. 중국과 남미 등 해외 영업이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북미와 유로존에서의 실적 개선이 호조를 이끔 ■ **스타벅스,** 4 분기(7~9 월) 순이익이 4 억 8111 만달러, 주당 63 센트로 어닝서프라이즈 달성하며 42 년 역사상 최고 기록. 메뉴 다양화와 글로벌 매장 매출 호조 영향.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은 전년 대비 7% 증가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6.7% 증가를 상회
	스타벅스	SBUX	0.5	
	제너럴모터스	GM	5.1	
필수소비재	월마트	WMT	1.3	■ **S&P500 유통,** 월간 12M FWD EPS 변화율은 3.96% 하락했음. 12M FWD PER 는 17.5 배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 식품 유통의 12M FWD EPS 변화율은 0.48% 증가 ■ **코카콜라,** 팹시콜라와 비교해 성장성 부문에서 부진하지만 이머징 시장에서 코카콜라가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동사의 배당금 인상 계획도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코카콜라	KO	1.5	
	베스트바이	BBY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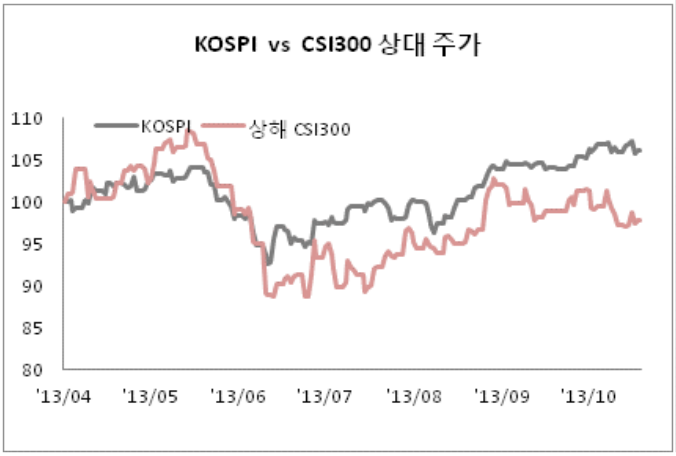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JNJ	1.4	■ **화이자,** 3 분기 매출이 126 억 4,300 만 달러로 2% 감소한 가운데 순이익 또한 25 억 9,000 만 달러로 19% 감소. 주당순이익도 한 주당 0.39 달러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9% 감소. 제네릭제형들의 매출잠식에 따른 여파를 반영. 한편 이언 C. 리드 회장은 특허만료로 인한 영향과 변화하고 있는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경영실적을 올렸다고 평가. 올해 전체의 주당순이익(EPS) 예상치를 당초 제시했던 한 주당 3.07~3.22 달러에서 한 주당 3.05~3.15 달러로 소폭 하향조정 ■ **머크,** 미국 내 2 위 제약업체인 동사의 올 3 분기(7~9 월) 순이익이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는 상회. 그러나 매출액은 시장 기대에 못미쳤음. 지난 3 분기중 매출액 110 억 3000 만달러(-4%,YoY), 순이익 11 억 2000 만달러, 주당 38 센트(-32%,YoY). 올 회계연도 연간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종전 3.45~3.55 달러에서 3.48~3.52 달러로 조정
	암젠	AMGN	2.0	
	악티비스	ACT	6.7	
금융	JP모건	JPM	-0.5	■ **은행주,** 지난 주 은행주의 움직임이 부진. 리보금리 조작과 모기지담보증권(MBS) 부실 판매로 곤욕을 치른 미국 은행권이 이번에는 환율 조작 혐의로 잇달아 수사를 받고 있음. 혐의가 입증될 경우 이번에도 대규모 벌금이 불가피할 전망 ■ **JP 모건,** 지난 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분기 공시자료를 통해 현재 외환거래 트레이딩 사업에 대해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아직까지 조사는 초기 단계이며 현재 관계당국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설명
	뱅크오브아메리카	BAC	-1.7	
	골드만삭스	GS	-0.0	
IT	비자	V	-1.9	■ **비자카드**, 비자카드는 카드결제부문에서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익을 기록. 또 높은 세금 부담으로 주당순이익 1.85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 2.47달러에 비해 감소.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 둔화를 만회하기 위해 신흥시장 개척 나섬 ■ **마스터카드,**지난 3분기 총순익이 8억 79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순익이 14% 가량 증가했고,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 전세계적으로 카드 사용이 늘어난 영향 ■ **페이스북,** 올 3분기(7~9월)에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모바일 광고매출이 급성장해 회사 전체 광고매출의 절반에 육박했음. 3분기 기준 모바일 광고 매출은 전체 광고 매출에서 49%나 차지. 앞선 2분기의 41%보다 8% 포인트나 높아졌고, 45.6%였던 시장 전망치도 크게 상회. 3분기 순이익이 4억2500만달러, 주당 17센트를 기록. 전년 주당 2센트 순손실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 유저수가 11억 9000명에 이르러 전분기의 11억5000명보다 늘어났고, 전년동기대비로는 18%나 증가
	마스터카드	MA	1.9	
	페이스북	FB	-4.2	
통신서비스	AT&T	T	3.0	■ **AT&T** 경영진이 2014년에 보다폰그룹 인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메가톤급' 인수·합병(M&A)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AT&T와 보다폰이 합병하면 시가총액은 2500억 달러에 달해 업계 최대 기업으로 부상. 양사의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는 5억명이 넘게 됨. 합병으로 AT&T는 구글과 애플 등 하드웨어업체와 업계 장악력을 놓고 대결할 것으로 전망. 애플 아이폰과구글안드로이드폰 등 스마트폰 보조금 지급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모바일 광고 부문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음
	버라이즌	VZ	-0.4	
	스프린트	S	6.5	
유틸리티	듀크에너지	DUK	0.2	■ **S&P500 유틸리티, 가스 유틸리티의** 월간 12M FWD EPS 변화율은 2.13% 증가했음. 전기 유틸리티는 0.2% 상승. 종합 유틸리티의 경우 0.64% 증가했음. 각각의 12M FWD PER 는 차례대로 22.5 배, 14.7 배, 16.6 배를 기록 중 ■ **서던**, 동사의 3 분기 실적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유틸리티 대형주 중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임. 3 분기 주당 순이익은 $1.08 로 예상치 $1.11 을 하회. 실적 부진의 이유는 예상보다 온화한 날씨 탓에 전기 수요가 감소해 에너지 부문 총 매출이 전년 대비 2.9% 하락했음. 또 동사의 영업 유지 비용이 전년대비 2.4% 증가했고 총 영업 비용도 6.6% 증가했음. Zacks Rank 에서는 동사에 대해 매도 의견을 제시했고, 유틸리티 업종 중 UNS Energy Corp(UNS)에 대해 '강력 매수'를 추천
	서던	SO	-3.4	
	엑셀론	EXC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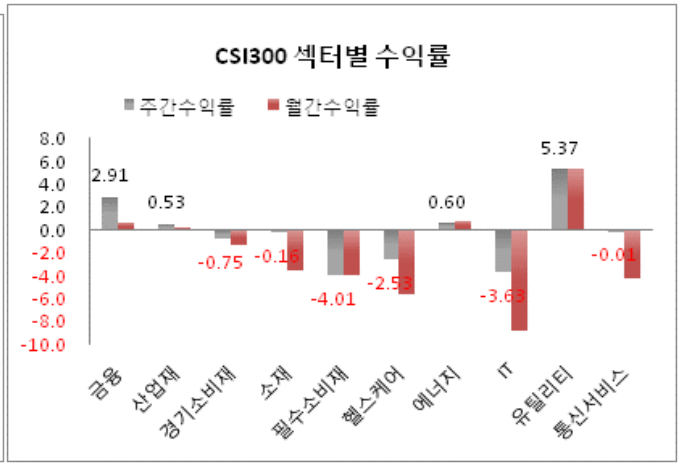
Any Comment or News

✓ 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모기지 금리가 최근 상승세를 지속하고 주택 소유주들이 추가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매물이 감소

✓ 1일(현지시간) LA 공항 총격 사건이 벌어져 공항 보안 검색 요원이 숨지고 공항이 일시 폐쇄되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었음

6.중국섹터/종목뉴스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석유화학	페트로 차이나	0857	1.1	■ 시노펙,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2.14 조 위안으로 YoY+5.7%, 순이익 516 억 위안으로 YoY+23%. 3 분기 순이익 220 억 위안으로 예측치 193 억 위안 상회 ■ 페트로 차이나, 올해 1 월~ 9 월 매출액 1.68 조 위안으로 YoY+5.3%, 순이익 952.93 억 위안으로 YoY+9.6%. 3 분기 순이익 298 억 위안으로 예측치 313 억 위안 하회 ■ 발전개혁위원회, 11 월 1 일부터 가솔린과 디젤유 가격을 리터당 각각 0.05 위안, 0.06 위안 인하.
	시노펙	0386	6.0	
	시누크	0883	4.6	
가전제품	TCL 통신	2618	10.9	■ 동방전기,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303.88 억 위안으로 YoY+2.3%, 순이익 18.88 억 위안으로 YoY+3.5%. ■ TCL 통신, 홍콩 응용과학연구원과 MOU 를 체결하여 향후 무선기술 및 무선제품 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함.
	동방전기	1072	8.6	
	Skyworth	0751	9.0	
자동차	장성 자동차	2333	0.4	■ BYD,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387.04 억 위안으로 YoY+16.9%, 순이익 4.65 억 위안으로 YoY+2,127.38%. 3 분기 매출액은 126.64 억 위안으로 YoY+20.3%, 순이익은 3,816.2 만 위안으로 YoY+727.45%. ■ 장성자동차,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408 억 위안으로 YoY+38.4%, 순이익 62 억 위안으로 YoY+59.7%. 3 분기 매출액 144 억 위안으로 YoY+28.5%, 순이익 21 억 위안으로 Yo+40%.
	지리자동차	0175	4.6	
	BYD	1211	-1.4	
의약	포순의약	2196	1.6	■ 백운산 제약(전 광저우 제약),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132.048 억 위안으로 YoY +54.93%, 순이익은 7.28 억 위안으로 YoY+28.58% 증가하여 시장 예측치 하회. ■ 포순의약,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70.71 억 위안으로 YoY+31.2%, 순이익은 13.89 억 위안으로 YoY+27.1%. 3 분기 매출액 25.61 억 위안으로 YoY+35.2%, 순이익은 3.36 억 위안으로 YoY-14.2%.
	백운산 제약	0874	-11.8	
	시노팜 그룹	1099	3.1	
증권사	해통증권	6837	3.0	■ 신은만국, 중국 내 최초 상장 증권사인 홍웬증권과 합병. 두 증권사의 최종지배자는 모두 중국 국부펀드 산하 중앙회금공사(Central Huijin Investment)인 것으로 알려짐. 당일날 신은만국 주가는 7% 가까이 상승. ■ 해통증권,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82.99 억 위안으로 YoY +20.4%, 순이익은 36.91 억 위안으로 YoY+51.3%. 3 분기 매출액은 26.39 억 위안으로 YoY+44.2%, 순이익은 10.26 억 위안으로 YoY+147.3%. ■ 중신증권,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103.35 억 위안으로 YoY+26.8%, 순이익은 36.97 억 위안으로 YoY+26.6%. 3 분기 매출액은 42.94 억 위안으로 YoY+82%, 순이익은 15.87 억 위안으로 YoY+136.3%.
	신은만국	0218	10.6	
	중신증권	6030	4.7	

섹터	종목명	티커	주간(%)	섹터 / 종목 이슈
철도운수 및 장비	중국 남차	1766	0.6	■ 중국 철도그룹,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3,840 억 위안으로 YoY+20.18%, 순이익은 62.6 억 위안으로 YoY+46.4%. 신규계약규모는 5,328 억 위안으로 YoY+18%. ■ 중국 남차,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565.2 억 위안으로 YoY-11%, 순이익은 25.1 억 위안으로 YoY-12%. ■ Zoomlion,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288.97 억 위안으로 YoY26.11%, 순이익은 37.95 억 위안으로 YoY -45.48%
	중국 철도그룹	0390	3.3	
	Zoomlion	1157	6.9	
은행	중국공상은행	1398	5.4	■ 공상은행,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4,419.17 억 위안으로 YoY+10.07%, 순이익은 2,055.33 억 위안으로 YoY+10.74%. ■ 농업은행,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은 3,513.41 억 위안으로 YoY+11.03%, 순이익은 1,379.88 억 위안으로 YoY+14.91% ■ 중국은행, 올해 1 분기~3 분기 순이익은 1,202.1 억 위안으로 YoY+13.24%.
	중국농업은행	1288	8.3	
	중국은행	0939	6.0	
IT	텐센트	700	-0.8	■ 레노버그룹, 거치를 할 수 있는 스탠드를 내장한 안드로이드 태블릿 '요가태블릿(YogaTablet)'을 출시. 화면크기는 8 인치와 10.1 인치이며, 한번 충전하면 최대 18 시간 사용가능.
	레노버그룹	0992	4.6	
	ZTE 통신	0763	-2.0	
통신	차이나 모바일	0941	1.1	■ 차이나 텔레콤, 1 분기~3 분기 누적 매출액은 2,381.86 억 위안으로 YoY+13.4%, 누적 순이익은 147.14 억 위안으로 YoY+17.1% 증가하여 시장 예측에 부합. ■ 공업정보화부 관계인사는 4G 라이선스가 12 월 중순에 발급될 예정이며 늦어도 12 월 18 일 이전에 발급될 것이라고 전함.
	차이나 유니콤	0762	0.5	
	차이나 텔레콤	0728	0.5	
항공사	동방항공	0670	4.1	■ 중국국제항공,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737.87 억 위안으로 YoY-3.3%, 순이익은 40.61 억 위안으로 YoY-3.7%. 3 분기 매출액은 279.29 억 위안으로 YoY-2.9%, 순이익은 29.42 억 위안으로 YoY-7.3%. ■ 동방항공,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671.13 억 위안으로 YoY+2.4%, 순이익은 36.21 억 위안으로 YoY-0.2%. 3 분기 매출액은 256.33 억 위안으로 YoY+2%, 순이익은 28.58 억 위안으로 YoY+8.5%. ■ 남방항공, 올해 1 분기~3 분기 매출액 744.24 억 위안으로 YoY-4.43%, 순이익은 24.6 억 위안으로 YoY-7.69%.
	남방항공	1055	-0.7	
	국제항공	0753	-1.7	

Any Comment or News

✓통계국, 1월~9월 전국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익 4.05조 위안 YoY+13.5%.

✓중앙은행, 9월 신규 외국환평형기금은 2,682.4억 위안으로 MoM+174%, 5개월이래 최고치 기록

✓외환관리국, 1분기~3분기 국제수지 발표.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1,382억 달러, 자본 및 금융수지 흑자규모는 1,624억 달러, 국제준비자산은 3,006억 달러 증가.

✓외환관리국, 10월 QFII 신규 투자한도 승인규모는 10.2억 달러를 기록, 10월 RQFII 신규 투자한도 승인규모는 53억 위안.

✓발전개혁위원회, 11월 1일부터 가솔린과 디젤유 가격을 리터당 각각 0.05위안, 0.06위안 인하.

7.주간한국/미국기업실적발표일정

Exhibit 37 주간 한국/미국 기업실적 발표 일정

발표/예정	일자	기업명	Ticker	예상치 EPS(원, USD)	발표치 EPS(원, USD)	괴리율(%)
발표	2013-10-28	한) LG유플러스	032640 KS	216.01	172.95	-19.93%
발표	2013-10-28	한) 롯데캐미칼	011170 KS	3,340.17	4,441.05	32.96%
발표	2013-10-28	한) 두산인프라코어	042670 KS	114.62	129.90	13.33%
발표	2013-10-28	미) Merck & Co Inc	MRK US	0.87	0.92	5.26%
발표	2013-10-29	한) SK하이닉스	000660 KS	1,445.89	1,365.20	-5.58%
발표	2013-10-29	한) SK텔레콤	017670 KS	6,577.93	6,242.12	-5.11%
발표	2013-10-29	한) 현대모비스	012330 KS	8,740.43	8,507.24	-2.67%
발표	2013-10-29	한) DGB금융지주	139130 KS	587.67	626.16	6.55%
발표	2013-10-29	한) 신한지주	055550 KS	1,087.62	1,103.37	1.45%
발표	2013-10-29	미) Apple Inc	AAPL US	7.92	8.26	4.27%
발표	2013-10-29	미) United States Steel Corp	X US	-0.43	-0.14	67.37%
발표	2013-10-29	미) Pfizer Inc	PFE US	0.56	0.58	3.76%
발표	2013-10-29	미) Actavisplc	ACT US	2.09	2.09	-0.05%
발표	2013-10-29	미) 3D Systems Corp	DDD US	0.26	0.26	-1.52%
발표	2013-10-30	한) CJ오쇼핑	035760 KS	3,754.22	3,499.11	-6.80%
발표	2013-10-30	한) GS홈쇼핑	028150 KS	4,540.91	4,652.90	2.47%
발표	2013-10-30	미) Electronic Arts Inc	EA US	0.12	0.33	172.73%
발표	2013-10-30	미) Comcast Corp	CMCSA US	0.61	0.65	6.91%
발표	2013-10-31	한) CJ제일제당	097950 KS	9,012.74		
발표	2013-10-31	한) 현대중공업	009540 KS	2,519.45	334.21	-86.73%
발표	2013-10-31	미) Kraft Foods Group Inc	KRFT US	0.69	0.70	1.45%
발표	2013-10-31	미) Starbucks Corp	SBUX US	0.57	0.60	5.26%
발표	2013-10-31	미) MetLife Inc	MET US	1.36	1.34	-1.33%
발표	2013-10-31	미) Facebook Inc	FB US	0.19	0.25	35.14%
발표	2013-10-31	미) Visa Inc	V US	1.85	1.85	-0.05%
발표	2013-10-31	미) Time Warner Cable Inc	TWC US	1.64	1.69	2.86%
발표	2013-10-31	미) Exxon Mobil Corp	XOM US	1.77	1.79	1.42%
발표	2013-11-01	한) KT	030200 KS	857.01	405.00	-52.74%
발표	2013-11-01	미) Chevron Corp	CVX US	2.70	2.57	-4.74%
예정	2013-11-04	한) BS금융지주	138930 KS	525.22		
예정	2013-11-05	한) LS	006260 KS	2,075.00		
예정	2013-11-05	한) 현대백화점	069960 KS	2,572.42		
예정	2013-11-05	미) Tesla Motors Inc	TSLA US	0.10		
예정	2013-11-05	미) AOL Inc	AOL US	0.51		
예정	2013-11-06	미) Duke Energy Corp	DUK US	1.51		
예정	2013-11-07	한) 한라비스테온공조	018880 KS	642.43		
예정	2013-11-07	한) GS리테일	007070 KS	676.82		
예정	2013-11-07	한) SK브로드밴드	033630 KS	20.82		
예정	2013-11-07	한) 인터파크	035080 KS	98.09		
예정	2013-11-07	한) NAVER	035420 KS	2,539.76		
예정	2013-11-07	한) 위메이드	112040 KS	314.25		
예정	2013-11-08	한) 빙그레	005180 KS	2,283.68		
예정	2013-11-08	한) 아모레퍼시픽	002790 KS	7,507.59		
예정	2013-11-08	한) 아시아나항공	020560 KS	214.94		
예정	2013-11-08	한) 코웨이	021240 KS	661.75		
예정	2013-11-08	한) 롯데쇼핑	023530 KS	9,132.00		
예정	2013-11-08	한) 강원랜드	035250 KS	476.84		
예정	2013-11-08	한) 롯데하이마트	071840 KS	3,110.86		

Source:Bloomberg, 리딩투자증권

투자전략팀

Strategist 김재호 CFA
(02)2009-7197
kimjh1@leading.co.kr

Quant Analyst 정정원
(02)2009-7068
jwjung@leading.co.kr

미국 담당 (R. A) : 박지미
(02)2009-7059
jmpark1@leading.co.kr

중국 담당 (R. A) : 최미나
(02)2009-7176
mncui@leading.co.kr

*©.2013**LeadingInvestment&SecuritiesCo**.Allrightsreserved*